

잡아함25 다문경

날짜: 11월 17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82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.

“세존께서는 ‘많이 들음[多聞]’을 말씀하시는데, 어떤 것을 많이 들음이라 합니까 ?”

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네가 지금 나에게 많이 들음의 뜻을 물었느냐 ?”

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그렇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.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 비구야, 마땅히 알라. 만일 ‘색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, 탐욕을 떠나며, 모든 번뇌가 다해 적정한 법에 머무른다’라고 듣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많이 들음이라 한다.

이와 같이 ‘수 · 상 · 행 · 식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, 탐욕을 떠나며, 모든 번뇌가 다해 적정한 법에 머무른다’라고 듣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많이 들음이라 하느니라. 비구야, 이것이 여래가 말하는 ‘많이 들음’이니라.”

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